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 다른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

The Reading Promotion Campaigns for Children of Public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3.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의
'조부모와 책 읽기(GAB)' |
| II. 다른 나라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 4. 싱가포르의 'Born to Read, Read
to Bond' |
| 1.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귀로 읽기 --
슈투트가르트 독서 프로젝트' | III. 독서진흥활동의 주요한 특성 |
| 2. 영국의 '채터박스' | IV.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주로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새로운 독서패러다임으로서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귀로 읽기' 캠페인, 영국의 '채터박스', 싱가포르의 'Born to Read, Read to Bond' 및 미국의 '조부모와 책 읽기(GAB)'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는 것이 강조된다. 둘째, 도서관 외부의 후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양시킨다. 넷째, 독서와 더불어 토론을 중시한다. 다섯째, 독서운동의 지역반경이 확대될 수 있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독서진흥활동, 어린이독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everal reading promotion campaigns for children carried out by public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Listen Out! - The Stuttgart Reading Project" in Germany, "Chatterbooks" in the U.K., "Born to Read, Read to Bond" in Singapore and "Grandparents and Books(GAB)" in the U.S.A. are examined. While the first three campaigns started in the 2000s, GAB has been carried out by Los Angeles Public Library since 1989.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ampaigns are as follows: First, reading books with adults is emphasized. Second, it is important to get some support and sponsor from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Third, various media, program and activities related to books are used to promote interests in reading. Fourth, discussion and reading are equally emphasized. Fifth,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reading campaigns can be extended in the global community.

Key Words: Public Library, Reading Promotion Campaigns, Reading for Children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 접수일: 2007년 5월 24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I. 머리말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독서와 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사회구조와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든 독서는 그 자체가 매우 창의적인 활동이며, 다른 창의적인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특히 21세기의 급변하는 직업시장의 도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독서능력을 갖도록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²⁾ 또한 독서는 교육의 성취도를 높이고,³⁾ 삶의 기회를 개선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전제 하에, 정규교육에서도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 어린이들로 하여금 독서를 즐기고, 독서활동의 영역을 개발하며, 평생토록 독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⁴⁾

1990년대 말 이후 다른 나라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독서운동을 보면, “독서는 거의 모든 문화적, 사회적 활동의 선행조건”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의 확산, 인터넷의 등장 및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독서량이 점차 줄어가고, 책을 중심으로 한 활자문화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⁵⁾ 이제는 어린이의 독서능력을 고양하고,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정, 학교나 도서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기업과 개인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서서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92년에 “Reading the Future”이라는 컨퍼런스를 통해, 출판사, 서적상, 사서 및 예술행정가 등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도서관에서의 문학의 미래를 논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다음 세기를 향하여 독서진흥활동을 추진할 새로운 재정지원, 새로운 프로그램 및 새로운 “독서담당기관(reading agencies)”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997/1998년에 “독서의 해(National Year of Reading)”를 제정하고, 공공도서관 독서챌린지 기금(Public Libraries Reading Challenge Fund)을 조성함으로써, 도약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⁶⁾ 그러면서 영국은 1992년에 영

1) Rubin, Richard E, 문헌정보학개론. 구본영, 윤정옥 공저. (서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3), p.242.

2) Their Reading Futures, 2004, “Demo Report: Libraries and Creative Reading.”
<http://www.theirreadingfutures.org.uk/reader_dev/documents/DemosreportLibrariesandcreativereadingJune04.rtf>

3) OECD, 2001, “Literacy Skills for the World of Tomorrow: Further Results from PISA 2000, Executive Summary.” <<http://www.oecd.org/dataoecd/59/31/2960581.pdf>>

4) 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3, “Framework for the Future: Libraries, Learning and Information in the Next Decade.”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Publications/archive_2003/framework_future.htm>

5)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2003, “Reading at Risk.”
<<http://www.nea.gov/pub/ReadingAtRisk.pdf>> [cited 2007.4.22]

6) Spencer, Julie, and Jane. Mathieson, “Time for a change: co-operative reader development working in the North West of England,” *New Library World*, Vol.104, No.10(2003), pp.391-403.

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북토론 운동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다각적인 독서활동을 전국적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새로운 독서패러다임으로서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귀로 읽기’ 캠페인, 영국의 ‘채터북스’, 싱가포르의 ‘Born to Read, Read to Bond’ 및 미국의 ‘조부모와 책 읽기(GAB)’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은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면서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는 독서운동들이다. 또한 도서관과 더불어 학교, 정부, 시민, 단체, 기관 등 사회가 함께 나서서 어린이의 독서능력을 기르고, 독서문화를 고양하는 데 힘을 합침으로써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독서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II. 다른 나라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1.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귀로 읽기 -- 슈투트가르트 독서 프로젝트’

‘귀로 읽기--슈투트가르트 독서 프로젝트’ (“Leseohren aufgeklappt! Stuttgarter Vorleseprojekt” 영어로는 “Listen Out! - The Stuttgart Reading Project”)는 독일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의 주도(州都)인 슈투트가르트에서 2002년에 시작된 독서진흥 프로젝트이다.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어린이중앙도서관(Zentrale Kinderbücherei KIM im Wilhelmshof, Stuttgart Central Library)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이 ‘귀로 읽기’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언어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한다.

‘귀로 읽기’의 배경

슈투트가르트는 육십삼 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작은 도시이다. 슈투트가르트 자체는 주위가 낮은 언덕과 포도원들로 둘러싸여 있는 비교적 작고 아늑한 도시이지만, 독일에서는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들 가운데 하나로, 여러 개의 유명한 대규모 회사들이 소재한 현대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 도시에서 ‘귀로 읽기’가 시작된 배경에는 이 도시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독서를 경험할 기회를 잘 갖지 못하고, 언어발달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독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⁷⁾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민자들

7) “Listen Out! - The Stuttgart Reading Project.” <<http://www.breuninger-stiftung.de/en/leseohren.html>>

의 지속적 유입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전통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책 이외 매체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의 평균 독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독일은 1990년대 말에 이미 전체인구의 8.5%가 비독일어권 출신이었고, 슈투트가르트만 해도 현재 학생들의 25%가 외국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이민자의 자녀들이 독일을 적절히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시청각 오락매체와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독서능력과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더욱이 2002년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서베이에서 독일 학생들의 독서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브로이닝거 재단(The Breuninger Foundation)이 후원하여 ‘귀로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다.⁸⁾

‘귀로 읽기’는 브로이닝거 재단과 로버트바쉬 재단(Robert Bosch Foundation)이 재정을 지원하고, 슈투트가르트도서관, 슈투트가르트문학회관(Literature House in Stuttgart, Literaturhaus) 및 시의 청소년복지담당부서가 함께 주관하며, 슈투트가르트 어린이 중앙도서관(KIM)에 조정센터를 두고 있다. ‘귀로 읽기’를 위해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어린이시설과 도서관에서 두 명에서 다섯 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소집단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으므로, 어린이들은 일대일로 자원봉사자와 대할 수 있으며, 각자의 독서능력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귀로 읽기’ 독서활동을 진행하면서 발전된 비영리단체인 “Leseohren(듣는 귀, Reading Ears)”는 처음에 오십 명의 자원봉사자들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백 육십여 명이 참여할 만큼 ‘읽어 주기’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현재 열여덟 개의 슈투트가르트 어린이도서관, 서른일곱 군데의 어린이병원, 삼십여 군데의 학교, 유치원 등에서 십 분에서 오십 분 동안 책 읽어주기가 연 삼천오백여 회 이상 진행되고 있다.⁹⁾

주요한 활동

‘귀로 읽기’의 중심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Stadtbücherei Stuttgart)은 시내의 “Wilhelmspalais”에 중앙도서관, 어린이 중앙도서관, 예술자료관(Artothek)과 음악도서관이 있으며, 도시의 외곽에 분산된 다양한 규모의 열여섯 개의 분관과 이동도서관을 갖고 있다.¹⁰⁾ 이 도서관 시스템에 속한 슈투트가르트 어린이 중앙도서관에서는 ‘귀로 읽기’ 프로젝트를 “Leseohren Aufgeklappt, 영어로는 Open Ears -- For Books Read Aloud”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¹¹⁾

8) Breuninger Foundation, “Educational projects launched by the Breuninger Foundation.”
http://www.breuninger-stiftung.de/en/bildungs_projekte.html

9) Leseohren, a.V., “Das Stuttgarter Vorleseprojekt: Das Projekt.” <http://www leseohren-aufgeklappt.de/>

10) Bolzmann, Sigrid, 2000, “City Library Stuttgart.”
http://www.die-bonn.de/erdi/bolzmann_2000_city_library_stuttgart.htm

사서와 더불어 Leseohren 재단에서 책 읽어주기를 위한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책 읽어주는 대모(Reading Godmothers)”가 함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이 프로젝트의 효과로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보폭대로 언어와 읽기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소리 내어 읽어주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스토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어린이들은 소그룹으로 잘 듣기를 경험하게 되고, 읽기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의 언어나 독서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과 같은 가시적 효과를 금방 기대하지는 않으나, 프로젝트 시작 이래 어린이도서관의 대출이 1.5배 증가했다거나, 책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에서 ‘귀로 읽기’를 위해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는 “여덟 개의 귀로 이야기 듣기”이다. 여기에서 “여덟 개의 귀”란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평균적 독일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과 책 읽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거나,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어린이들이 독서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그림책 쇼’는 대형 그림책의 그림을 스크린에 비추고, 본문을 낭송하면서, 한데 모인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보고 듣고 즐길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시각적으로 즐기고, 스토리를 듣게 함으로써 내용을 함께 나누게 한다는 효과를 갖는다.

“쟁반 위의 문학(Literature on a Tray)”은 이야기와 시의 맛과 멋을 나누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그러는 것처럼, 쟁반 위에 시나 이야기를 담아갖고 가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시를 낭송해주거나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입맛, 양념, 뷔페’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작품들 가운데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도서관에서 ‘책 읽기 파티’를 열고, 어느 휴일 하루 “다양한 맛의 이야기들의 뷔페를 먹어치우고, 언어에 대한 입맛을 돋우는 전채요리를 먹고, 한 상 잘 차려진 시들을 만나자”고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어낸다. 12)

그 밖에도 ‘이야기하기 게임(Storytelling Games)’을 통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경험하게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를 정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작품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게 하고, 이야기 속에 있는 행동을 동일시해보면서, 등장인물과 보다 친숙하게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11) Stadtbücherei Stuttgart, “Kids Rule in the Media Realm! - The Stuttgart Children's Libraries.”

〈http://www.stuttgart.de/stadtbuecherei/kinderbuecherei/angebote/media_realm.htm〉

12) 윤정옥, “독일 슈투트가르트 ‘귀로 읽기’ 캠페인,” 사람과 책, 제27집(2006), pp.88-92.

2. 영국의 '채터박스'

'채터박스(Chatterbooks)'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네 살부터 열두 살까지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공공 도서관 독서동아리의 전국 네트워크이다. 채터북스는 '수다쟁이'를 의미하는 '채터박스(Chatterbox)'라는 단어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처럼, 어린이들로 하여금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가 읽은 것에 관하여 다른 어린이나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면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성하고 표현하며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독서운동이다.¹³⁾

채터북스의 배경

채터북스는 2001년 9월에 영국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와 오렌지(Orange)¹⁴⁾가 협력하여 시작하였고, The Reading Agency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채터박스 첫해의 시범사업에는 플리머스(Plymouth), 맨체스터(Manchester) 및 켄싱턴 & 첼시(Kensington & Chelsea)에서 세 개 도서관 체제(Library Authorities)가 참여하였는데, 2003까지는 96개, 2005년 말까지는 모두 127개의 도서관 체제가 각각 참여하고, 모두 323개의 독서동아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모두 3,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였는데, 2005년에는 참여자의 75%(어린이 3,074명: 남자 1,013명, 여자 2,036명)를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100%의 구성 비율을 추정하면, 모두 5,000여 명이 채터북스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5-8세는 23%(1,150명), 9-12세가 72%(3,600명), 12세 이상은 5%(25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활동하는 동아리의 수는 2004년 11월 무렵의 266개보다 57개나 늘어난 것이다.¹⁵⁾

여기에서 도서관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 도서관 관할 하에 특정한 지역에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개의 공공도서관의 집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채터박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런던의 브롬리 자치구(Borough of Bromley) 공공도서관 체제는 에널리 도서관, 베켄햄 도서관, 비긴힐 도서관 등 모두 여덟 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한편 채터북스를 시작한 오렌지는 영국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회사로 1999년부터 The Reading Agency와 파트너로서 영어로 발표된 소설작품을 위한 문학상인 'Orange Prize for Fiction'을 수여해 왔다. 오렌지는 이 상과 연계된 교육적 이니셔티브의 틀 안에서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어린이 독서동아리의 전국네트워크를

13) 윤정옥, "영국의 '채터북스'," 사람과 책, 제35집(2007), pp.88-92.

14) Orange, 2007, "Chatterbooks," <<http://www.orange.co.uk/about/community/chatterbooks.html>>

15) The Reading Agency, 2005, "Orange Chatterbooks, Report 2005."

<<http://www.theirreadingfutures.org.uk/documents/Cbks2005evaluationpresentation.pdf>>

16) London Borough of Bromley, 2007, "Chatterbooks,"

<<http://www.bromley.gov.uk/libraries/whatsonatthelibraries/chatterbook>>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채터북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오렌지는 자사가 갖고 있는 “기업의 지역 사회 투자(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라는 목표와 지역사회, 창의성 및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한 초점이 채터북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비즈니스와 공익사업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하였다.¹⁷⁾

채터북스를 주관하는 The Reading Agency는 독자를 위해 도서관이 하는 업무를 발전시키는 기관으로, 채터북스를 운영하는 도서관 체제에서 핵심 담당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훈련시키고, 정기적으로 전자우편, 분기별 채터북스 뉴스레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서와 도서관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관, 주요한 출판사 및 그 밖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300여명에게 분기별 뉴스레터를 제공한다. 오렌지는 참여하는 각 어린이에게 동화속 등장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채터북스 보따리(Chatterpack)’를 주는데, 그 안에는 독서기록장이 있는 방수 A4 폴더, 스티커 시트, 연필, 풍선, 필기장, 점쟁이(fortune teller) 게임, 자석책갈피 등의 살림살이가 들어 있다.

주요한 활동

채터북스는 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이는데,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모이지만, 학교, 지역사회센터 등에서도 모임(session)을 갖는다. 2003년 채터북스에 참여하는 그룹 가운데 70%는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가졌다. 모임과 모임 사이에 이 정도 시간을 둘 때, 어린이들은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고, 도서관은 준비할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서들이 월례모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모임은 방과 후에 저녁때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모임이 열리는 헤일턴 같은 곳에서는 이 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였다.¹⁸⁾

각 모임은 사서와 보조직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진행하며, 도서관은 뉴스레터에서 적합한 활동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책 표지 디자인, 시 읽기와 짓기, 저자와의 만남, 다른 책으로 이끄는 단서를 갖는 책을 이용한 보물찾기, 책표지에서 만든 직소우 퍼즐, 이야기에 따라 연기하기, ‘세계 책의 날’이나 ‘The Big Read’와 같은 외부 행사 참여, 서점 방문 등 도서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물론 여러 프로그램 안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핵심 활동이 되었다.

채터북스는 올해 초 특별한 독서행사를 가졌다. E.B.White의 어린이 명작 ‘살롯의 거미줄’이 영화로 만들어져 2월에 개봉되는 것과 더불어, 책과 영화를 연계한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오렌지와 The Reading Agency는 니켈로디온, 파라마운트영화사 및 펭귄출판사와 제휴하여, 채터북스 독서동아리들과 도서관을 ‘살롯의 거미줄’ 연합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살롯의 거미줄’과 그 주제에 관

17) The Reading Agency, 2003, “Chatterbooks Report, November 2003.”

〈[http://www.theirreadingfutures.org.uk/documents/Chatterbooks Report 2003.pdf](http://www.theirreadingfutures.org.uk/documents/Chatterbooks%20Report%202003.pdf)〉

18) The Reading Agency, 2003, 상계보고서, p.6.

한 다양한 활동내용을 담고 있는 '채터팩(Chatterpack)'을 만들어 주었다. 채터팩에는 영화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이 책의 주제인 '우정'을 다룬 다른 어린이 문학작품 소개, 오렌지 채터박스 활동 및 가족 활동을 위한 단어 찾기, 보물 찾기, 퀴즈, 독서토론 조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¹⁹⁾

채터박스의 특성

채터박스는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 그리고 되도록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대개의 도서관은 보통 4년을 단위, 즉 4-7세 동아리 혹은 9-12세 동아리로 연령별 목표를 정하였는데, 특정한 목표 집단을 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컴브리아, 더비셔, 링컨셔 등에서는 농촌지역의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었고, 길드포드는 도심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 인구이동이 매우 많은 캠브리지셔에서는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했고, 스탠포드셔에서는 지역의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롱이튼 지역에서는 50-60%의 어린이들이 보호대상자였다.²⁰⁾

주민의 57.3%가 유색인종으로서, 런던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다민족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인 브렌트의 윌스텐 그린 도서관은 2002년 1월부터 매달 두 번째 월요일에 모임을 가졌고, 스무 명의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새 것과 낡은 것, 선사시대와 석기시대, 마술과 미스테리, 유명한 사람, 동물, 특별손님 소피 달과의 만남 등 매번 다른 주제로 책을 읽고 활동하며 토론하였다. 여기 참여한 어린이들은 점점 더 책을 잘 읽고, 많이 읽으며,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할 때 '멋진 표현(big words)'을 더 잘 사용할 줄 알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2003년의 채터박스 보고서는 2001년 이후 적어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하였다: 첫째, 채터박스는 어린이의 독서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북돋운다. 둘째, 채터박스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술과 자신감을 길러준다. 셋째, 채터박스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기준을 높여준다. 넷째, 채터박스는 핵심적 국가 정책 안전을 지지한다. 다섯째, 채터박스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뛰어난 모델로 여겨진다.

이 가운데 채터박스가 핵심적 국가정책 안전을 지지하는 데서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어린이들이 채터박스를 통해 학교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독서에 대해 알게 되고 저자를 만나는 창의적인 기회와 자유를 갖게 되며, 읽기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얻게 됨에 따라, 영국의 '국가 리터러시 전략(National Literacy Strategy)'의 성공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평가

19) Orange, 2007, "Charlotte's Web, Read the Book, See the Film! Orange Chatterpack."

〈[http://www.orange.co.uk/documents/community/charlottes web chatterpackfinal.doc](http://www.orange.co.uk/documents/community/charlottes%20web%20chatterpackfinal.doc)〉

20) The Reading Agency, 2003, 전계보고서.

이다. 또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도서관 책을 고르는데 돕게 하고, 핵심적 공공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며, 자원봉사의 기회까지도 갖게 함으로써 ‘시민의식(citizenship)’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채터북스는 또한 도서관 서비스로 하여금 어린이 독자 그룹의 전국네트워크를 처음으로 만들도록 도왔으며, 비즈니스가 개별적 도서관 서비스들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경험을 개선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국가 도서관 발전전략인 ‘미래를 위한 틀(Framework for the Future)’에 채터북스를 성공적 사례로 포함시켜 소개하고 있다.

2005년 75%의 도서관 체제에서 채터북스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보다 넓게 책을 읽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채터북스가 어린이들에 미친 영향으로서 나타난 것은 참여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읽기능력, 더 많은 독서에 대한 선택권, 책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어린이들이 보다 폭넓게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더욱 즐기게 되고, 읽은 책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이 더 많이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더불어 계획과 활동에 대한 리더쉽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음을 보고하였다.

채터북스는 한편 도서관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어린이들과 일하는 데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다 적합하고 생동감 있는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와 양육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닿기 어려운(hard to reach)” 어린이 집단에 닿을 수 있었고, 어린이들과 보다 가깝게 접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서비스가 자기들의 요구에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특별히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21) 책과 더불어 즐거운 ‘수다쟁이’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채터북스가 제시한 새로운 독서생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의 ‘조부모와 책 읽기(GAB)’

‘조부모와 책읽기(Grandparents and Book, 이하 GAB이라 부름) -- Adults & Children Reading Together’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 이하 LAPL이라 부름)이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책을 읽도록 마련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GAB의 배경

LAPL은 중앙도서관과 더불어 로스앤젤레스시 전역에 무려 71개의 분관도서관을 갖고 있어,

21) The Reading Agency, 2006, 전계보고서.

미국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공공도서관이다. 1987년 LAPL의 어린이서비스부서는 로스앤젤레스의 노인층 인구의 삼분의 일이 혼자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접촉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방과 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이 지내며, 가장 낮은 독해능력 점수를 보이고 있는 이십만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을 한 데 모이게 하고, 노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갖는 어린이들에게는 독서능력을 고양시키고, 세대 간에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확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GAB을 시작하게 되었다.²²⁾

LAPL은 1988년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을 통해 도서관서비스건축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LSCA)의 기금지원을 받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세 개의 분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작하며, 46명의 자원봉사자 “도서관 조부모(Library Grandparents)”를 모집하여 훈련하고, 1989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7,061명의 어린이들에게 1,966시간을 책을 읽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으로 1989년-91년에, 다시 LSCA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 LAPL의 중앙도서관과 모든 분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1996년 6월 현재 거의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00,000여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또한 1991년-94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과 LAPL의 어린이서비스부서가 함께 136개 도서관을 훈련시켰고,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 내 도서관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1995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의 “Intergenerational Preconference”에서 전국의 70여개 도서관을 훈련시켰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도 교사를 위한 서비스 훈련에 GAB를 포함시켰다.

주요한 활동

GAB 프로젝트는 “훈련(Tutoring)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서의 즐거움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즐거움이 있으면 독서의 힘(the power of reading)은 오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³⁾ GAB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자원봉사자인 어른이 도서관에서 어린이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거나, 어린이가 자기에게 읽는 것을 들어주면 된다. GAB의 철학은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성과나 성적의 부담이 없는 순수한 “독서의 즐거움(Reading for enjoyment)”을 소개하자는 것이다. GAB은 어린이들이 독서를 즐거움과 연관지을 수 있다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어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GAB은 자원봉사자에게 어린이들이 열중할 수 있도록 표현력 있게 읽고, 소품, 게시판, 또는 다른 기법 등을 사용하게 하지만, 절대로 어린이들을 가르치지는 않도록 한다.

22) Wade, Maureen, 1996, “Grandparents and Books: Trainer’s Manual, Los Angeles Public Library, Children’s Services,” Edited by Susan Patron, Revised ed.

<http://www.lapl.org/about/gab-manual.pdf> [cited 2007.05.22]

23) Wade, Maureen, 1996, 전제논문. p.12.

지난 십 육년 동안 'GAB(Grandparents and Book)'의 디렉터로 일했고, 미국도서관협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을 위해서도 GAB 연수를 담당했던 LAPL의 선임어린이 사서 모린 웨이드(Maureen Wade)는 최근 GAB을 위해서 대화형 독서(dialogic read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어른 독자가 어린이로 하여금 함께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토론하도록 독려하는 과정, 즉 대화(dialog)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 대화형 독서는 연구에 기초를 두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의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와 어린이도서관서비스협회(Association of Library Service to Children, ALSC)가 전국적인 리터러시 권장 프로그램인 "Every Child Ready to Read @ your library"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린이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언어능력과 독서능력을 발전시키게 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가 있다.

LAPL에서 진행하는 GAB 연수는 두 차례의 워크숍으로 구성되고, 각각은 세 시간씩 진행된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 자원봉사자는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림책 한 권을 소리 내서 읽음으로써, 어린이들이 그 책을 스스로 즐기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게 연습한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전에 과제로 받은 대화형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읽은 내용을 토론하고, 어떤 책이 가장 여기에 적합한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²⁴⁾

대화형 독서는 세 가지의 비교적 단순한 전략을 포함한다. 즉, 어린이에게 '무엇(what)?'이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고, 개방형 질문이며, 어린이가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의 전체적인 목표는 어린이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자신이 보는 것을 보다 완전하게 기술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책이 대화형으로 공유될 수 있다고 한다.²⁵⁾

GAB은 책을 읽어주거나 읽게 하는 것 자체가 활동의 핵심이다. LAPL에서는 GAB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두 차례 다른 날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GAB 자원봉사자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 GAB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책을 읽어주게 하면, 그 사람이 어린이가 가진 '애들아, 책 한 권을 준다네!(Kids, A Free Book for You!)'라는 메시지가 쓰인 책갈피에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서명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이 어린이는 책 한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GAB 자원봉사자는 중앙도서관이나 자기 동네의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 이상, 적어도 육 개월 동안은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읽기로 약속을 하고, 책 읽기를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연수를 받아야 한다.

24) Wade, Maureen, March, "Dialogic Reading for Children: Can It Work in a Library?" *The CBC (Children's Book Council) Magazine* (2006), <<http://www.cbcbbooks.org/cbcmagazine/perspectives/200603.html>>

25) Arnold, Renea, "Charming the Next Generation," *School Library Journal* (July 2005), <<http://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621755.html>>

GAB의 ‘애들아, 책 한 권을 준다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어린이가 한 해에 단 한 권의 책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어른들이 읽어주는 스토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읽어서 남에게 들려주는 것을 큰 즐거움이나 자랑으로 여기게 되고, 그렇게 받는 책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면서 독서라는 행위와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이다.²⁶⁾

GAB의 특성

GAB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독서활동이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서관 바깥에서 개인적으로는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GAB 자원봉사자가 어린이에게 집까지 차를 태워다 준다거나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도서관 내의 활동으로 만들고 있다.

한편 GAB은 “도서관소요아동(Library Latchkey Children)”을 위한 성공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가된다. “도서관소요아동”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른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방과 후에 보호자가 없이 공공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을 의미한다. 도서관이 이들이 도서관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아동보육(child care)의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GAB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⁷⁾

GAB은 그러면서 미국 국내 및 세계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에도 독서활동의 모델이 되어 오고 있는데,²⁸⁾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카운티 공공도서관에서도 열일곱 개의 분관에서 “Grandparentst/Grandreaders & Books”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에버리 분관은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가 하면, 베어마운틴 분관이나 리들리 분관은 매주 한 번씩 진행하는 등 각 분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든 연령층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책을 읽어주는 방식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²⁹⁾ 또한 GAB 프로그램을 모형으로 해서 캘리포니아주의 글렌데일 공공도서관은 “Grandparents in the Classroom”이라는 프로그램을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유치원생, 1학년 및 2학년 학생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는 학교에서 하나 이상의 학급을 “입양(adopt)”하여 일 년 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30분간 크게 책을 읽어준다. 한 주일에 백여 개의 학급에서 2,000여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이 활동을 위해

26) 윤정옥, “미국공공도서관의 스토리타임,” 사람과 책, 제30집(2006).

27) Dowd, Frances Smardo, 1992, “Library Latchkey Children,” ERIC Digest(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Urbana IL.) ED 343687.
<http://www.ericdigests.org/1992-4/latchkey.htm> [cited 2007.05.22]

28) Los Angeles Public Library, “GAB,” <http://www.lapl.org/about/gab.html> [cited 2007.04.22]

29) Fresno County Public Library, 2007, “Grandparent/Grandreaders & Books.”
<http://www.fresnolibrary.org/child/prch/gab.html> [cited 2007.05.22]

서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와 연계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환영하고, 이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³⁰⁾

4. 싱가포르의 ‘Born to Read, Read to Bond’

싱가포르의 “The Born to Read, Read to Bond”는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부모-자식 간의 유대를 증대시킴으로써 가족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가 2001년에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신생아부터 열두 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싱가포르 지역사회발전 및 스포츠부(MCDS)와 국가도서관 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Born to Read, Read to Bond’의 배경

싱가포르는 685km²의 작은 도시국가로 2005년 현재 총인구가 435만 명으로 그 가운데 주민(resident)은 354만여 명 정도이며, 1 Km²당 평균인구가 6,208명으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조밀하기로 손꼽히는 나라이다.³¹⁾ 그러나 싱가포르는 교육수준과 문해능력(94+%)은 세계 수위에 들고, 사람이 힘이며, 지식이 자산임을 강조하는 나라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교육부는 “나라의 부(富)는 국민, 즉, 이들이 얼마나 나라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참을 용의가 있는가, 얼마나 생각하고, 성취하고, 뛰어나게 될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교육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것은 1997년 당시 고축통(Goh Chok Tong) 총리가 선포한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나라(Thinking School, Learning Nation, TSLN)”이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학교”는 모든 의미로 “배우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는 계속해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참여, 창의성 및 혁신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뜻한다. “생각하는 학교”는 학교가 생각하는 학생들과 생각하는 어른들의 요람이 되고, 이러한 배우는 정신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조차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배우는 나라”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배우는 것을 장려하는 국가적 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구상하는 것이다.³²⁾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갖고 싱가포르는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일생동안

3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ffice for Literacy and Outreach Services, 2007. “Library Outreach to Underserved Populations: Services to the Elderly: List of Intergenerational Programs.”

〈<http://www.ala.org/ala/olos/outreachresource/intergenerationalonging.htm>〉 [cited 2007.05.22]

31)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Ministry of Trade & Industry, 2006. “Population Trends 2006.”

〈<http://www.singstat.gov.sg/pdtsvc/pubn/softcopy/population2006.pdf>〉

32)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07. “Mission and Vision Statement.”

〈http://www.moe.gov.sg/corporate/mission_statement.htm〉

배우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갖고,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꾸준히 국민 독서운동을 진행함으로써, 학교안과 밖에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쓸모 있는 지식을 일생에 걸쳐 스스로 찾고, 끊임없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³³⁾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세 개의 지방도서관(Regional Library), 스무 개의 지역사회도서관(Community Library) 및 열다섯 개의 지역사회 어린이도서관(Community Children's Library)을 포함하여 모두 73개의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 전체는 2006년 3월 현재 8백만 권의 장서, 110만 명의 회원, 2,800만 건의 대출 등의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³⁴⁾ 이 도서관 통계를 자세히 보면,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책을 대출하는데, 실제로 그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도서관 회원이고, 부모들이 대신해서 책을 빌어가고 있다고 한다.³⁵⁾ 따라서 'Born to Read, Read to Bond'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릴 적부터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MCDS의 요구가 가족결속력을 장려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고, 어린이로 하여금 책을 빌리도록 돕게 하면서 가족이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Born to Read, Read to Bond'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2001년 11월이지만, 어린이는 어느 시점에는 합류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의 모든 도서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2003년 현재 9개의 병원과 4개의 사설기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 사설기관이 국가도서관위원회 및 MCDS와 더불어 1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였다.

주요한 활동

'Born to Read, Read to Bond'는 신생아에서부터 열두 살까지의 모든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여기 참가하는 아홉 개의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들에게 모두 27,522개의 '까꿍책' 자루(Peek-a-Book pouch)를 나누어주었고, 2005년에 15,000여 개의 책 자루를 나누어주었다. 이 책 자루에는 싱가포르의 공식언어인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등 네 개 언어로 된 책 목록, 보드북, 독서요령 및 참여도서관이 신생아 부모에게 나눠주는 물품들이 함께 들어있다.³⁶⁾

'Born to Read, Read to Bond'는 먼저 신생아부터 세 살배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자기

33) 윤정옥, "싱가포르의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나라,'" 사람과 책, 제28집(2006), pp.88-93.

34) Singapore National Library Board. 2006a. "Annual Report 2005/2006: A Playground for Learning." http://www.nlb.gov.sg/annualreport/fy05/09_1yir.htm

35) Thulaja, Naidu Ratnala. 2003. "Born to Read, Read to Bond programme."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http://infopedia.nlb.gov.sg/articles/SIP_278_2005-01-24.html

36) Singapore National Library Board. 2006b. "Annual Report 2005/2006: Overview." http://www.nlb.gov.sg/annualreport/fy05/09_yir.htm

아이들을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네 권의 책을 빌려주고, 사회 명사들로 구성된 독서대사(reading ambassador)가 주는 가방을 어린이에게 준다. 2004년에는 모두 22,517명의 새 회원이 등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갓난아이부터 여섯 살배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책 읽는 우리 아기 곰(My Reading Cub)'과 일곱 살에서 열두 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 읽는 우리 곰돌이(My Reading Bear)'로 이어진다. 2004년 한 해 동안 1,400명의 부모가 '아기 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12,000권의 책을 빌어가고, '곰돌이' 프로그램은 117개 학교로 찾아가, 167,000여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이 두 프로그램에 39,500여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어린이들은 읽기뿐만 아니라, 부모와 상호작용하고, 자신들이 도서관에 제안할 독서활동 거리를 가져오도록 권장되었다. 어린이들이 제출한 내용은 도서관 벽에 게시되었다. 2005년에는 모두 삼천 명 가량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세션에 참여하였다.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04년부터 싱가포르의 어린이들, 특히 저소득 계층 어린이들로 하여금 책 읽기를 사랑하도록 장려하는 'kidsREAD'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청마위원회가 싱가포르 문화청소년서비스부(MCYS)의 지원으로 네 살부터 여덟 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로 실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도서관위원회 및 The People's Association과 더불어, 다섯 개의 지역사회 자립집단(self-help group)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kidsREAD'를 위해서 2006년까지 이년 동안 모두 35개의 독서클럽이 구성되었고, 545명의 자원봉사자와 1,63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다. 참여 어린이의 인종 비율은 60% 중국계, 29% 말레이계, 10% 인도계 및 1% 기타로 구성되었는데,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2005년 현재 중국계 77%, 말레이계 14%, 인도계 8%로 구성된 것에 비교해 보면 참여 어린이 구성비가 다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각 어린이는 매주 두 권의 책을 읽고, 아홉 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 2005년 4월 주룽 지역도서관에서 열린 일주년 기념식에서 217명의 kidsREAD 첫 참여자 그룹이 수료하였고, 130명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였다.³⁷⁾

Ⅲ. 독서진흥활동의 주요한 특성

앞에서 살펴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귀로 읽기' 캠페인, 영국의 '채터박스', 싱가포르의 'Born to Read, Read to Bond', 미국의 '조부모와 책 읽기(GAB)'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200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고, GAB은 1989년대부터 진행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

37) Singapore National Library Board, 2006b, 전계보고서.

되었다. 이 독서운동들은 서로 다른 지역, 국가에서 시작되었지만,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독서운동이라는 점과 더불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독서운동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는 것이 강조된다. 미국의 'GAB'이나 독일의 '귀로 읽기', 영국의 '채터북스' 모두 어른이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함으로써, 독서를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십여 년 이상을 지속되어 온 'GAB'의 성공적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가족이 아니어도,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들과 대화하며 책을 읽는 데서 책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믿음이 이 같은 활동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Born to Read, Read to Born'가 어린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은 부모라는 전제 하에 신생아, 영유아 시절부터 책을 읽어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어른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에 동반하는 사랑과 관심도 함께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책 읽기'는 독서운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둘째, 단일 도서관의 노력을 넘어서서, 크고 작은 외부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후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국의 '채터북스'를 후원하는 기업인 오렌지, 독일의 '귀로 읽기'를 재정 지원하는 브로이닝거 재단,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Leseohren'이나 LAPL의 GAB을 위한 'Library Grandparent'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처럼 도서관 외부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도서관이 내부에서 늘 수행해 오던 독서활동이 보다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원자 자체에도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있음은 오렌지사가 '채터북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 발전, 문학계의 포트폴리오에 핵심적 역할 수행, 직원들의 기회, 홍보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고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³⁸⁾

셋째, 책을 중심으로 혹은 매개로 한 다양한 매체,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양시킨다.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독서를 장려하면서 고립된 인쇄매체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책에 대한 친화감과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 같은 노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도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전역에 확대되어 있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고, 영국의 '채터북스' 또한 그렇다. 특히 앞에

38) OrangeChatterbooks, 2005, 전계보고서.

서 살펴본 영국의 '채터박스'를 위해 '살롯의 거미줄'의 영화와 책을 동시에 홍보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 니켈로디온, 파라마운트영화사, 펭귄출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동참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독서와 더불어 토론을 중시한다. '채터박스'에서 보는 것처럼 토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고양한다거나, 'GAB'에서 대화형 독서를 채택함으로써 독서를 혼자만의 행위가 아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행위로 확장시키는 노력이 많이 보이고 있다. '채터박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는 권리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스스로 "여러 책들에 대해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독서를 기반으로 한 토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회성, 공동체 의식의 발전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토론은 특히 공공도서관 독서운동의 가장 혁신적 형태의 하나로 평가되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도 핵심적 활동으로 여기는 바이고,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The Big Reads'와 같은 독서운동에서도 다양한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다.³⁹⁾ 토론을 통해 책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교류함으로써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순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독서운동에서 이를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다섯째, 독서운동의 지역반경이 확대될 수 있다. 먼저 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독서운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채택되고 진행될 수 있다. GAB는 로스앤젤레스 시민을 대상으로 LAPL에서 시작되었지만 캘리포니아주 여러 도시 및 다른 주 공공도서관들로도 확산되었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Born to Read, Read to Bond'는 영국의 북스타트와 유사한 형태의 영유아대상 독서운동이다. 글로벌 시대에 한 도서관, 혹은 한 지역에서의 독서운동이 적절하게 성공적인 모형으로 인정되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변형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정한 형태의 독서운동이 동시에 전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터박스를 지원하는 The Reading Agency가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역에 퍼져있는 참여도서관 사서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과 같이,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독서운동이 조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독서를 저해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이를 이용함으로써 사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보다 확대될 수 있고, 동일한 독서운동의 광역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39)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pp.6-32.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주로 2000년대에 시작된 다른 나라 공공도서관의 독서운동 가운데 성공적이라고 알려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조금씩 그 방법은 다르지만, 어린이들로 하여금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고, 일생 동안 책을 읽고 지식을 탐구하는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돕는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도서관과 외부의 기업, 단체, 개인이 협력하여 독서능력의 계발과 독서환경 조성이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가 되게 한다. 또한 책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 프로그램 및 활동, 그리고 토론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양한다. 그리고 지역반경을 넘어선 독서운동으로서 발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 독서운동의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성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어린이 대상 독서진흥활동에서도 어느 정도 눈에 띄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8월 서울 중랑구에서 첫 번째 북스타트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6년에는 17개 자치단체로 확산되었고, 2007년에는 여성가족부의 ‘가족문화조성사업’에 선정된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의 ‘북스타트 플러스’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청주기적의 도서관처럼 자체적으로 영유아와 어머니를 위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매년 ‘책 읽는 가족’을 시상하며, 계속해서 가족이 함께 책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든지, TV를 없애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든지 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족이 책을 읽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에서 본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읽기(reading)”만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읽기와 읽어주기(reading aloud)”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이 목소리로 연기하는 구연(口演)이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본문을 읽어주고 대화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듣고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동화구연가가 아닌, 가족 혹은 관심 있는 보통의 어른들과 교감하는 과정으로서의 책 읽고 듣기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목소리 연기에 대한 부담 없이 개인이나 소집단의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도 책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양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도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강연회, 전시회,

공모전, 각종 문학 관련 답사 등 다양한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서산, 순천, 원주, 청주, 부산 등지에서 행해진 ‘한 책, 한 도시’ 형태의 독서운동이나 서울의 ‘한 책, 한 도서관’ 독서운동 등에서는 선정된 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책 자체나 그 주제에 관련되어 보다 다양하면서도 집중적인 활동이 수행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런 활동이 단기의 행사 기간 내에 수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책”이라는 집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정규적인 활동보다 두드러지게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들이 어린이 독서진흥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 그리고 프로그램 및 활동이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존중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서운동의 지역반경이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형태의 독서운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영국에서 시작된 북스타트 운동이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독서활동은 아니지만 일본의 학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침독서운동이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절한 실행방법에 따라 성공한 모형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실패할 우려가 없이 채택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독서진흥활동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롭거나 발전된 형태의 다양한 독서운동이 진행되며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각 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 도서관 시설 개선과 확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구 육십삼만의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에 중앙도서관, 어린이 중앙도서관, 예술자료관, 음악도서관을 비롯하여, 도시 전역에 분산된 열여섯 개의 분관과 두 대의 이동도서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 싱가포르가 1995년 ‘Library 2000’ 발전계획을 세우고, 도서관의 콘텐츠, 서비스, 인원 및 기반구조를 확충하면서, 40) 주로 열 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3년에 처음 네 곳의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이래, 2006년 현재까지 열다섯 군데에 어린이도서관을 세운 것, 로스앤젤레스 시에 LAPL이 중앙도서관과 일흔 한 개의 분관이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도 2005년 ‘문자·활자문화진흥법(文字·活字文化振興法)(법률 제91호)’⁴¹⁾을 선포하면서,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시설, 장서의 확충, 전문사서의

40) Chia, Christopher, “Transformation of Libraries in Singapore,” *Library Review*, Vol.50, No.7/8(2001), pp.343-348.

41) 日本文部科學省. 2005. “文字·活字文化振興法(平成十七年七月二十九日法律第九十一号).”
〈http://www.mext.go.jp/b_menu/houdou/18/04/06032701/007/008.htm〉

충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등을 보면,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정비가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환경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 지역, 국가 차원의 노력이 눈에 띄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수적인 증가나 발전 속도가 그리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핵심적 문화교육 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을 곳곳에 세우고, 그 안팎에서 어린이를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독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단체, 기업과 사회가 지원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자연스럽게 건전한 독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